

어땠는지 이야기했네. 또 다정다감한 어머니의 가호 속에서
신의 섭리가 뜻하는 구원을 보았으니, 어머니께서 자기가
품은 연정을 알아봐주고, 여러 조안을 통해 올바르게 이끌
어주려는 것이라며, 이제 어머니의 지지에 힘입어 현재에
대한 불안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자기는 어머니
곁에 남아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도 했어.

라 투르 부인은 자신이 속내를 털어놓은 것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효과를 낳는 것을 보고, 비르지니에게
이렇게 말했다네.

“아가, 나는 너를 구속하고 싶지 않단다. 그러니 편하게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폴에게는 너의 사랑을 숨기거라.
일단 여자 마음을 얻으면, 남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단다.”

저녁 무렵, 그녀가 비르지니와 단둘이 있을 때, 파란색
수단을 입은 키 큰 남자 하나가 그녀의 집으로 들어왔네. 이
섬의 선교사로 온 성직자이자 라 투르 부인과 비르지니의
고해신부였지. 총독이 보냈던 게야.

“주의 자손들이여,”

그가 들어오면서 말했다네.

“하느님을 찬미하소서! 여러분은 이제 부자입니다. 신랑
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가난한 이들에게 선행을
배풀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라 부르도네 씨가 여러분께
무슨 말을 했고, 여러분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알고